

1933 일기(日記)

일제 강점기 부산 출신 전문학교 학생의 일상과 내면

1933년 일기(日記)는 오경봉 학생이 남긴 기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고등학생일기’에 1년 365일의 날씨와 일상을 빠짐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당시 학업에 대한 고민은 물론,
신문 읽기와 독서, 연극 관람 등 식민지 조선 학생의 내면과 생활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1930년대 부산의 교육 환경과 학생 문화를 보여주는
희소성 높은 생활사 자료이자 시대를 읽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1월 1일(일)>

날씨 : 맑음

발신 : 연하장 10통

수신 : 연하장 2통

나는 신년 첫 아침에 이렇게 결심한다.

희망과 기쁨에서 이 해를 맞으라!!

지나간 과거 1년을 깨끗이 청산하라!!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너의 최선을 다하라!!

지난 일을 다시 후회하지 마라!!

좀 더 만사에 정력을 내어라!!

감상에 흘러 눈물을 흘리지 마라!!

세상을 낙관하라!(자연의 창조를)

이상의 수준을 높이 하라!

세상 인심이 그렇게 동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하라!!

너의 존재를 똑똑히 인식하라!!

항상 정의의 길을 밟아라!!

너의 애인, 문학의 길을 정진하라!!

“이상의 모든 건에 나는 연말에 몇 가지나 실행하나를 보리라”

<1월 10일(화)>

날씨 : 흐림

수신 : 봉환(鳳煥) 참봉(參奉) 삼촌[叔主]

오늘도 날씨는 음산하여 그다지 기분이 좋지 못하다.

오늘 처음으로 책보를 끼고 나서니 또한 배우던 기분이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가 좋으리라.

3학기부터는 선생이나 학생이나 기분을 달리 하여 힘껏 준비¹⁾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시간표가 변했다. 순전히 준비식으로.

골치 아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노 걱정된다.

수업이 끝나고나니 기다리던 학비가 왔다.

어떻게 반가운지 마치 그리운 동무를 만나는 것 같다. 돈이 무 엇인지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변해주는지. 세상에 나온 사람이 누구나 이 돈이란 생물의 힘을 이기는 자가 있었던가? 돈은 판 이라. 물건을 샀다. 오늘은 그야말로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기 분이다.

1) 상급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뜻한다.

<2월 1일(수)>

날씨 : 맑음

이력 저력 1월도 다 지나가고 2월을 맞이 하였다.
질투와 원망에서 한 여성을 원망하던 나의 ○○아.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닥쳐올 너의 앞 길을 생각하여 조그마
한 노력을 아끼지 말자.
조금만 있으면 나는 중학의 교문을 떠나지 않느냐.
그때에 나는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스스로 실망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한달 동안 최후의 노력을 아끼지 말고 힘써 보자.
그래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초를 좀 더 튼튼히 못 잡은 것이 스스
로 후회된다.
세상은 실력이 없이 출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되지 못한 간판를 매고 뽑내지 말고 오로지 자기의 실력을 양
성함에 그의 인격이 나타나리라.

<3월 7일(화)>(3월 8일란까지 사용)

날씨 : 맑음

송별사

동무들을 보내며

인연이 하도 깊어 다섯 해라. 이 광음(光陰)을.
한 교실, 한 칠판에 자자구구(字字句句) 배워온 벗.
네 웃음, 내가 웃고, 내 웃음, 네가 웃어.
빼뚜른 이 세상을 바로 잡자 맹세한 벗.
내 어이 보낼손가, 정 깊은 너희들을.

졸업장 손에 들제 갈라지는 동무들아.
이 한 밤 권하는 술을 사양들하지 말게.
알지 못할 세상사라, 어느때 다시 보리.
다같이 떠나가는 이 한 밤의 작별주를.
웃으며 마시라고, 내 소원 그것이다.

세상이 하도 혐타, 내 들은지 오래러라.
고이 자란 너희들이 어이들 가겠는가.
그러나 동무들아, 네 나이 얼마든고.
반 사십 훨씬 넘어 이만 것도 배운 이가.
세상이 무섭다고 떨고 있을 이때인가.

상봉 후의 작별이란 옛말도 있거니와.
오늘의 이 작별을 내 서러 아니 한다.
떠나가는 동무들아, 부디 건강 잘 있어서.
후일에 서로 만나 악수로 맞이할 때.
기쁜 소식 들려주기, 나도 여기 맹세하네.

<4월 13일(목)>

날씨 : 맑음

수신 : 영수

오늘부터 전문학교 학생생활의 첫날을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새로운 교실, 초면의 선생, 새로운 교과서를 오늘 처음으로 대하였다.

우거진 연희의 숲 사이, 3층의 석조건물.

서양풍의 이 학교. 앞으로 4년 동안의 나의 생활이 오늘로서 서막이 열렸다.

그러나 나는 괴로웠다. 왜. 아직 내가 공부를 계속하게 될는지 가 의문이어서.

밤에 영수 군에게 편지가 왔다.

젊은 인테리[インテリ]의 눈물의 기록이다.

우리는 왜 이다지 모든 것의 고통을 받는지.

김 군의 사정도 나와 같다.

눈물과 한숨에서 고민하는 젊은이를 동정할 사람은 없는지.

<9월 2일(토)>

날씨 : 맑음

고요한 마을 밤도 깊은 밤이온대, 어스름 달빛을 안고 논 마당에 나와 재일 형과 나의 학교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형도 나의 일을 몹시 걱정하며 자기도 가급적으로 힘을 쓴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실패될 때는 나로서 앞으로 해나갈 플랜을 세우라고 한다. 한마디 말이나마 나의 하소할 것은 다시 재일형 밖에 없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튿날 아침 형은 나를 불러 말한다.

식전 삼촌에게 말하였더니 그리 거절하는 기색도 없으니 누가 다시 한번 말해보고 곧 경성에 올라오라는 용기를 주는 말이었다. 과연 형은 나에게 오아시스다.

<9월 25일(월)>

메모 : 부산까지

배우고자 하는 향학열은 최고도로 끊임없이 가슴 속에서 약동한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배우겠다”는 욕망과 야심은 모든 잡념을 억제하려 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나의 크나큰 신조이다.

오늘도 행여나 하는 구름 같은 조그마한 믿음에서 부산까지 석환(錫煥) 삼촌을 만나러 동래 30리를 걸어갔다.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여 혹시 2, 3원이라도 얻어 폐구일언하고 서울을 가놓고 볼 작정으로.

거기서 오후 5시 차로 캄캄한 30리 밤길을 마라톤식으로.

<12월 1일(금)>

날씨 : 맑음

이 해의 마지막인 12월이다.

“세월은 빠르다”란 평범한 글구가 다시 한번 번개같이 머리에 자극된다.

그 동안 나는 무엇을 하였던가.

희미하게 자기 존재를 망각해하는 곤경에 빠진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때 나의 심경은 조선일보에 연재되는 이기영(李箕永) 씨의 『고향』에 나오는 희준이의 산모퉁이에서 자기의 환멸과 현실의 모순성을 느끼는 장면과도 비슷하여라.

하종환이 와서 놀다가다.

그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태평하게[ノンキニ] 있지 말고 무엇이라도 해보라는 권고다.

<12월 31일(일)>

날씨 : 맑음

1933년의 총결산일이다.

회고하면 1933년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던 반면, 1년에 가장 불행한 저주의 해였다.

오늘에 있어 이 해 마지막인 오늘의 일기를 적으매, 짧지 않은 1년 동안이나마 자기가 지어둔 자기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할 때 이렇다 하고 무엇 하나 뚜렷히 한 것 없이 역시 시간의 제단 앞에 죄송스러이 고개 숙이는 미약한 자기의 그림자가 너무도 못나보이고 너무도 이 땅의 죄인같아 이 해의 마지막날인 오늘의 이 역사 페이지[ページ] 위에 자기의 못난 기록을 다시 한번 뒤적거려보는 이 마음.

1933년, 영원히 다시 회전하지 못할 이 흐름이여, 나에게 또 어여한 흐름이 오려나.